

“에이즈는 없다”는 주장에 대한 안타까움

글 | 김 신 우 · 성북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

“에이즈는 없다”는 주장의 홈페이지가 있고 책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에이즈 환자를 거의 매일 접하는 나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주장이다. 나부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방법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 것이 확실하다. 아무리 베나나무를 과학적인 듯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과나무라고 하더라도 배를 따는 농부는 배나무로 안다.

참고 문헌을 왜곡하거나 유사한 의견을 인용

과학적인 듯한 표현을 하지만 과학적인 글은 참고문헌을 달아야 하고 자기 논지의 근거가 되는 문헌이든 참고문헌이 요구된다. 사이언스 잡지나 네이처 잡지 등의 유명한 잡지들 글이 틀지 않더라도 국내 학술지 등의 한 편만이라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에이즈는 없다”는 의학적 주장의 글에는 의학적 학문분야에서 인정하는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하는 것이 대부분 없으며 인터넷의 자기와 유사한 생각을 하는 집단의 글을 번역해서 인용하거나 그냥 “누가 그렇게 말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실제 사건/인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

하지 않으면서)의 식의 글이다. 또한 소위 박사나 나름대로 과학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듯하지만 이들은 에이즈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며 반에이즈 운동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막사라면 무엇이든지 잘 아는 사람간이 이해할지 모르지만 공학박사와 농학박사와 심지어 의학의 한 분야(예, 외과학)를 한 막사라도 에이즈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다.

“의사가 에이즈는 없다는 주장을 했다”는 식의 표현으로 전문가가 자기에게 동조한 것처럼 표현하려고 하나 자기의 주장을 옹호하는 용도로 등장시킬 뿐이며 그런 사람이 정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나는 믿기 어렵다.

외국 자료 중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글도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이 참고문헌들을 읽어보면 에이즈를 인정하는 데서 논란점에 접근한 몇 수문이며 대개는 주장에 일치하지 않는 데,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왜곡해서 참고문헌으로 직어놓고 있다. 인용하는 참고 문헌의 잡지들은 에이즈는 없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잡지들이다.

현재 국내에서 에이즈는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신하며 혼신의 힘으로 많은
사람을 모아 들이는 형상
과유사하다.
한 가지 덧붙
여 HIV 감염 치료
제의 부작용에 대한
여러 정보가 “에이즈는
없다”는 주장을 하는 단
체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
는데 이는 약물의 부작용을 강
조하여 약제를 먹지 않도록 유
도하는 목적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우리가 흔히 먹는 진통제인 타이
레놀이나 아스피린의 설명서에도 부
작용은 매우 자세히 길게 나와 있다.
에이즈 치료약이 부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다른 약제들보
다 비교적 흔하다.

주장에 인용된 참고

본문의 본문을 읽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인 것 같지는 않다. 그 참고문헌의 원문을 읽고 바로 이해했
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야

나는 국내에서 “에이즈는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선의를 가지고 있으나
외국자료의 진위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그렇게 믿
고 싶은 마음으로 반에이즈 단체의 글을 속독하고 지기 것
으로 소화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소경이 소경의 길을 안내하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 현상은 사이버 종교의 지부장이 그 사이버종교를 맹

그러나 현재 그 치료 효과는 너무나 잘 증명

이 되어 있다. 감염인들로부터 최선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일이 그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중병이 된 적이 없다는 등의 글을
쓰고 있다면 의학교과서 한 부분만이라도 읽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요즘은 한국어로 된 번역판도 쉽
게 구할 수 있다. 이들의 홈페이지에서 이들을 반박하는 논
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으나 의미 없는 일이다. 반이돌임
준비가 안 된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만 낭
비된다.

“에이즈는 없다”는 주장의 책을 읽는 분이나 이 홈페이
지에 접속하시는 분은 에이즈에 대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
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것을 알고 이런 주
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